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9. 6.(수) 11:00 < 9.7.(목) 조간 > 배포 2023. 9. 6.(수)

정부·지자체·수출지원기관, 울산 지역기업의 통상·수출 환경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

- 조선·해양·자동차 등 울산 주력산업의 통상·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 노력
- 지역기업의 목소리를 정부가 대외교섭에서 직접 대변, 통상환경 적응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9. 6.(수)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지역 15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여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지역기업들은 ①친환경 선박 개조 EPC* 활성화를 지원방안 마련, ②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특혜세율의 원활한 적용, ③세계(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발맞추어 해외 주요국에 현지법인 설립 시 필요한 관련 모든 사항(제반) 정보 제공, ④러·우 전쟁으로 인한 전략 물자판정의 필요 시간을 줄이는 등 수출 및 통상환경 전반에 걸친 다양한 건의·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

* (EPC) 기반 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전 과정을 통합(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울산지역의 15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 「울산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기업의 통상 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전선을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통상주무부서인 산업부와 지자체·지역기업과의 긴말한 소통”을 강조하며,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역 수출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통상 애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해 신속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	책임자	과 장	홍순파 (044-203-5760)
		담당자	사무관	신대근 (044-203-576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울산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협약**

□ (일시/장소) ’23. 9. 6 (수), 14:00 ~ 14:20 /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울산지역 내 15개 수출지원기관장 등 50여명

* (정부/지자체)산업부, 울산중기청, 울산세관, 울산시

(수출지원기관)무협(울산FTA통상진흥센터)·중진공·KOTRA·무보·수출입은행·산단공·aT·생산성본부·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상공회의소, 울산TP

□ (목적) 울산지역 수출지원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지원

□ (진행순서)

시간	소요(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5’	참석자 소개	FTA통상센터
14:05-14:10	5’	모두 발언	통상협정활용과장
14:10-14:15	5’	업무협약(MOU) 서명	수출지원기관장
14:15-14:20	5’	기념 촬영	교섭실장